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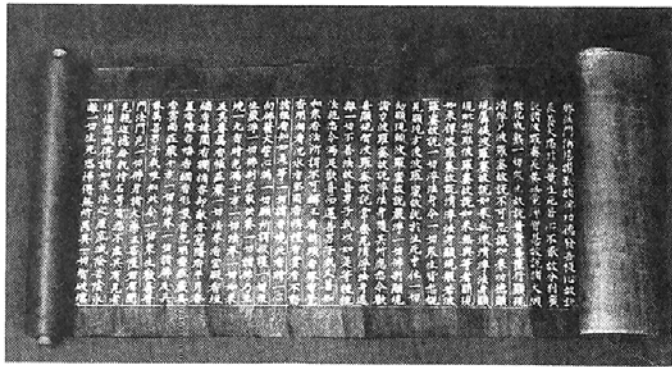
11세기 사경 '대방광불화엄경' 햇빛

양산 대성암서 보물급문화재 15점 발견

11세기에 제작돼 국내에 있는 고려사 경중 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권49, 고려시대 권여대사의 유일한 전적인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通記)>상권 등 보물급 문화재 15점이 무더기로 발견돼 불교사 서지학 연구에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시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불교사 뿐만 아니라 국어학, 서지학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경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은 두루마리 형태의 권자본(卷子本)으로 현존하는 고려 사경중 가장 연대가 앞서는 <대보적경(大寶積經, 일본 국립교토박물관 소장)>의 글씨체와 일치하고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 49 사경본.

'대승기신론소' '일승법계도원통기' 등 불교학·서지학연구 획기적 자료

경남 양산시 대성암(주지 원진)에서 소장해 오던 고문서를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서지 유물에는 이외에도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화엄경(華嚴經)>,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상권,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권 91·92, <법화문구법지필요(法華文句并記節要)>권 6, <다라니경(陀羅尼經)>,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등 불경 10점을 비롯해 서예 1점, 유화경전 해석서 1점, 문집류 3점으로 대부분 불교관련 유물.

남원대학교는 "발견된 전적 대부분이 있어 11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 사경은 대부분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 세조때 간경도감에서 고경지(精으로 만든 종이)로 찍은 권여대사의 <일승법계도원통기>도 판본으로는 첫 발견이다. 또 권여대사의 전적으로는 처음 발견돼 고려시대 불교사상의 이해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조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찍은 <대승기신론소>는 현존하는 판본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약제구결까지 쓰여 있어

15세기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인도의 마명(馬鳴)보살이 쓴 <대승기신론>을 원료가 주석한 것으로 일찍부터 여러 판본이 전해왔으나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던 조선 초기 금속활자본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엄경>은 국내의 목판본 <화엄경> 대부분이 1행에 16~17자인 것과는 달리 1행이 34~40자로 되어있어 거란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가(永嘉) 현각스님이 선종의 세계를 설명한 <선종영가집>하권은 현재 보물로 지

정된 <선종영가집>상권(동국대 소장)과 짝을 이루는 책이다.

서지학자 천해봉 명예교수(성균관대)는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49의 사경은 11~14세기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4세기동안의 사경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며 <일승법계도원통기>상권도 유일하게 현존하는 권여대사의 글로 고려 불교사상을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와 경전



사십이장경



이병욱 고려대 겸사

<사십이장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나누어 알기쉽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이다. 각각의 경전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 당시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현대에서 경전을 해석하는 자세도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십이장경>에

담겨 있는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또한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어서 과연 참 진리는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학자들은 현대의 특징으로써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기술의 시대이고, 둘째 대중의 시대이며, 셋째 신화의 시대이다. 기술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많은 편리함을 누리지만, 그 결과 인간이 기계에 종속당하는 비극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져 대중이 출현하고, 이

그리고 대중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살게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간의 처신이 문제가 된다. 사람이 많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다. 나쁜 사람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악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경에서는 "지금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해도 내가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던 재앙은 저절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비유하면 메아리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끝내 허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을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현대와 같은 대중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본본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신화는 실제로 그런 점이 없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하는 신념체계이다.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이던 것이 재물 즉 돈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금전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 우리

인터넷으로 '삼국유사' 읽는다

내년 6월부터...강인구교수등 번역·주석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내년 6월부터 삼성 유니텔의 '디지털 한국학' 인터넷 서비스로 소개된다.

정신문화연구원 강인구교수(고고학)를 비롯해 김성현(동국대, 사학과) 황배강(단국대, 고전문학) 김두진(국민대, 사학) 장충식(동국대, 불교미술) 교수 등이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된 종중본 <삼국유사>를 주본으로 3백여개의 삼국유사 관

련 논문 등을 주석에 작극 반영해 새롭게 번역·주석하고 있는 <삼국유사>가 유니텔에 등재된다.

국외에서는 일본학계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해방이후의 한국학계가 올린 성과를 소홀하게 취급한 삼품정영(일본 천리대 사학과)의 일본본 <삼국유사>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공동점을 보인다

진실을 알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니텔에서 제공할 '디지털 한국학' 서비스는 <삼국유사>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한 국미술사 △한국학연구 △한 국학 논지목록 △인명록D/B 등도 제공하는 '한국학 가상도서관'.

한편 정구복(정신문화연구원 사학과) 김태식(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이 최근 출간한 <역주 삼국사기>도 유니텔 '디지털 한국학'에서 제공된다.

두견지장 圖像 남방루트로 전래

동대불미연, 20일 '한·중 불교미술' 세미나

동국대불교미술문화연구원(소장 문명대)은 2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중·미 미술과 한국 미술의 관계성'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 한·중 불교 미술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한국 불교미술의 독자성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정희 원광대학교수는 두견지장과 김지장 도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중 지장도상의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두견지장이 투르판에서 둔황을 거치는 북방루트를 통해 전래됐

다는 종래의 설과 달리 사천성이나 운남성 등의 남방루트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천지방은 시왕신앙의 본거지로, 대석석굴(大石窟)의 지옥변상이나 6도윤회상, 지장보살상이 고려불화의 주제나 도상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는 것. 고려시대의 두견지장상 유행에 대해서는 당시 승복제도와 관련, 승려들의 두견지를 착용하는 습속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송대까지 주로 지장보살상이 조성되다가 명대 이후 지장신앙과 시왕신앙이 민간신앙화되면서 지장보살의 형상은 김지장상으로 대체되는데, 김교수는 김교각을 보살형으로 표현한 김지장상이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거의 조성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하나의 도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나라간의 선택적 수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양중 대동원년명 금석삼존불좌상의 연구'(문명대), '둔황 막고굴의 굴전건축유지 연구'(마세정), '선종사원건축의 교류관계'(차강근) 등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현대인 삶의 본보기 42장으로 함축 흠뻑 없애는 대처법 아함경서 인용

대중들을 움직이는 논리가 바로 신화이다. 신화란 원래 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 의미가 확장되어 명확한 근거없이 대중을 움직이는 신념체계를 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명 연예인에 대해 그 연예인을 모방하려는 것도 일종의 신화라 할 수 있다.

<사십이장경>에는 이러한 현대의 특징이자 문제에 대해 처방책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많다. 이 경에서는 욕심에 뒤얽힌 범부의 생각을 말지말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기술의 시대에 대한 처방책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지식을 믿고 이 지식에 근거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 결과 인간이 행복하기보다는 과거보다 더 소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지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연을 착취하였고, 인간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다. 이 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된다. 그대의 생각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여색을 만나는 것을 삼가라. 여색과 만나면 재앙이 생긴다. 아라한이 되고 나서야 그대 자신의 생각을 믿어도 좋다"

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조차 안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에 대해 이 경에서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이 재물을 탐하는 것이 마치 칼날위에 있는 꿀을 탐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혀를 베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칼날위에 있는 꿀은 먹기 곤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이 경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십이장경>은 과거에 걸쭉한 경전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많은 가르침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경의 각 장은 <아함경>에서 인용한 것이 많은데 단목멸(斷滅滅)의 정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인간의 삶은 본래 고(苦)인데 그 고의 원인과 그를 없애는 대처법에 대해 알기쉬운 비유를 들어 설한 것이 이 경의 특징이다. 또한 이 경은 초기경전의 성격이 강하고, 무상, 무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대중적인 보시공덕과 보살정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불교의 핵심을 간파하며 읽을 수 있다.

「카야」 불교잡지와 「카야」경전 소개

부디피아 사이버 기행

'내면으로'

존 볼리터(51·美)가 개설한 '내면으로'(Access to Insight)는 아함경의 일종인 팔리어 5부(部, Nikaya)의 영문본을 제공하고, 상좌부불교의 교리와 경전 등을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는 장부(Digha-nikaya), 중부(Majjhima-nikaya), 상우부(Samyutta-nikaya), 증지부(Anguttara-nikaya), 소부(Khuddaka-nikaya) 등의 <니카야> 일부를 영문으로 제공하며, 소개된 경전들은 모두 압축되어 있어 '로딩' 서비스를 이용해 가져올 수 있다. 또 영문본 <니카야>의 주석을 통해 상좌부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제, 팔정도, 십이인연 등의 교리를 설명하고 일상 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으로 삼기를 권하고 있다. <니카야>는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운 경전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불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에서 발간하는 불서와 저자들을 검색·열람할 수도 있다.

http://world.std.com/~metta/index.html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도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미!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항방재료추출물(오미자, 구기자, 감초, 속지황, 천궁, 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도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브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력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오브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인 항방재료추출물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보다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